

**Contents**

|                 |   |
|-----------------|---|
| 권두언             | 1 |
| 논문발표회 및 학술대회 소식 | 2 |
| 수상소식            | 2 |
| 2018년도 하반기 일정   | 3 |
| 학회지 발간          | 3 |
| 신간소개            | 4 |
| 공지사항            | 7 |
| 회비납부            | 8 |

발행일 2018. 6. 30.  
발행처 한국러시아문학회  
발행인 서상범

**권두언**

**긴 여름을 준비하며**



김혜란 (고려대)

부끄러운 얘기지만 수업 도중 내가 하는 말에 문득 자신이 없어질 때가 있다. 기계적으로 말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머릿속으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관련 인물의 이름이나 원래 잘못 외우던 년도라면 실수를 밝히고 정정할 수 있지만, 작품 해석을 하던 중이라면 말을 끊어버릴 수도 없고 나중에 정정도 어렵다. 더욱 난감한 것은 그 말이 오랫동안 반복해 왔고, 나름대로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들일 때이다. 예컨대, 일반적인 코미디와는 다르지만 <갈매기>를 코미디로 볼 수도 있는 이유와 그 근거가 될 코미디의 정의를 잔뜩 늘어놓다 말고, 라넵스카야와 로파힌 사이의 숨겨진 갈등의 표지를 짚어가며 설명하다 말고 과연 <벚꽃동산>에서 인물들의 갈등이 중요할까, 체홉은 정말 무슨 생각으로 트레플레프의 자살로 끝나는 희곡을 코미디라고 부른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역시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렇게 잠시 나를 혼란스럽게 하던 문제들은 해결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다음 시간으로, 다음 학기로 밀리고 젖혀진다. 그리고 때론 찝찝한 마음에 이것저것 들춰보다 다음과 같은 구절을 발견하고는 쉽게 안심하기도 한다. “<갈매기>는 체홉의 희곡 중 가장 어려운 희곡이다.” “<벚꽃동산>은 지금까지 쓰인 가장 위대하고 가장 어려운 희곡이다.” 그래, 이 작품들은 원래 쉬운 작품이 절대 아니었어. 그러곤 말년의 체홉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다음 구절을 물음표를 잔뜩 붙여놓은 강의 노트에 밀도 끝도 없이 결론처럼 써넣는다. “인생을 그렇게 복잡하게 보지 말고 즐겁게 지내세요. 어쨌든 인생은 사실 훨씬 더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을 두고 온갖 괴로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래전 체홉으로 처음 논문을 썼을 때도 나는 이 말을 옮겨 적었다. 여전히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나를 확인하게 한 그 오래된 논문에서 체홉의 말은 미숙하고 주관적인 논문을 강제 종료하는 키처럼 적혀 있었다. 많은 얘기를 했지만 더이상 복잡하게 따질 필요 없다는 듯이. 하지만 게으른 오독을 허용하기 위해 체홉이 그런 말을 한 것은 물론 아니었을 것이다.

여느 해와 같이 장마로 시작되는 긴 여름 이제 묵은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한다. 행운과 갈채를 태연히 받고 사는 트리고린과 아르카디나 옆에서 트레플레프는 왜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마는 건지, 중요한 건 참는 거라고, 영원한 안식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살아야 한다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니나와 소녀의 위로를 좀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는 체홉의 목소리로 생각해도 될 것인지 등등의 문제를 말이다. 가을이 되면, 또 그다음 6월이 되면 모스크바로 갈 거라는 체홉의 답답한 세 자매가 그랬듯이 다시 미뤄질지도 모르지만, 이번 여름에는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볼 것이다.

## 논문발표회/학술대회 소식

▶ 4월 7일에 제82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가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문학분과는 변현태 회원(서울대)이 사회를 맡아주셨습니다. 박선영 회원(충북대)이 [전기 vs. 반(反)전기: 탈신화화 수단으로서의 반전기]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고, 차지원 회원(서울대)이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어학분과에서는 권경준 회원(성균관대)이 [정보구조적 화제와 형태론적 디폴트: 술어 화제화 구문(predicate topic construction)의 통사적 파생]을 주제로 발표해 주셨고, 사회는 김진규 회원(고려대)이, 토론은 김보라 회원(연세대)이 맡아 주셨습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제4회 한국러시아문학회 논문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김혜란 회원(고려대)이 [‘유로지비의 귀’: V. 메이예르홀트의 실현되지 못한 공연 <보리스 고두노프>]의 학술적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논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지난 6월 2일에는 제 83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가 뿌쉬킨하우스와 공동 주관한 막심 고리끼 탄생 150주년 기념 좌담회로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막심 고리끼 문학의 현대적 의미와 한국’이라는 주제로 서상범 회원(부산외대)이 사회를 맡아주셨으며, 이강은 회원(경북대), 변현태 회원(서울대 교수), 심성보 회원(건국대 교수) 및 러시아에서 초청된 마리나 아리아스-비힐(고리끼 세계문학연구소 선임연구원), 키릴 가브릴린(스트로가노프 예술아카데미 예술사 및 인문학과 학과장)이 패널로 참여해주셨습니다.



## 수상소식

▶ 김혜란 회원(고려대), 제4회 한국러시아문학회 논문상 수상

김혜란 회원이 제4회 한국러시아문학회 논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김혜란 회원은 논문 [‘유로지비의 귀’: V. 메이예르홀트의 실현되지 못한 공연 <보리스 고두노프>](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56집)으로 학술적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은 4월 7일에 열린 제 82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러시아문학회는 한 해 동안 발표된 논문 중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이듬해 정례학술논문발표회에서 논문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다. 논문상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30만원)과 상패가 수여됩니다.



## 2018년도 하반기 일정

▶ 10월 13일(토)에 2018년 국내 러시아학 관련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가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학술대회 주제는 ‘러시아성 다시 읽기’(Re-thinking Russianness)입니다. 18세기말-19세기에 본격화되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인의 자기정체성 규정과정을 문학, 문화, 어학, 사회과학등 여러 분과에 걸쳐 공시적, 통시적 맥락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총 40여명의 한국과 러시아의 관련 연구자들의 발표가 예정

되어있으며 올해의 주관기관은 한국슬라브학회입니다.

▶ 12월 8일(토)에 제 84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학, 어학, 문화 등 분야를 망론하고 발표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총무국(karusist@naver.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지 발간

▶ 2월 25일에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60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제60집에는 문학, 문화, 언어 분야의 논문 13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학 분야에는 김민아 회원(서울대)의 [영혼의 변형과 창조적 해방을 향해: 바체슬라프 이바노프의 『탄탈로스』 분석]을 비롯한 논문 6편이, 문화 분야에는 오원교 회원(고려대)의 [현대 러시아의 대중의식을 통해 살펴본 '10월 혁명': 소연방 해체 이후 현재까지 여론 조사를 중심으로]의 1편이, 언어 분야에는 길운미 회원(경북대)의 [러시아 언어-문화에서 친구 개념의 변천과 특징: друг, подруга, товарищ를 중심으로]의 3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편이, 언어 분야에는 권경준 회원(성균관대)의 [러시아어 대명사 중 출구문의 통사적 파생], 문화 분야에는 권기배 회원(중앙대), 김세일 회원(중앙대)의 [한-러 음악 산업 발전 현황 연구: 상호보완적 관계 구축을 위한 제언]의 2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2018년 8월 25일에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62집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 5월 25일에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61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제61집에는 문학, 언어, 문화 분야의 논문 7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학 분야에는 강수경 회원(부산대)의 [M.A. 불가코프와 도시-모스크바: 1920년대 펠리에톤을 중심으로]을 비롯한 논문 2

## 신간소개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출간된 책을 인터넷 교보문고 및 출판사 제공 서평과 함께 올립니다.)

### 1. 『코뮤니스트 후기』 (보리스 그로이스 지음, 김수환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7년 11월 10일 출간)



철학자이자 예술비평가 보리스 그로이스의 ‘소비에트 공산주의’에 대한 도발적인 해석을 담은 책

이다. 그로이스는 철학과 언어가 지배했던 스탈린주의적 사회야말로 공산주의적 세계였다고 단언하며, 결코 사면될 수 없는 사악한 음모적 정치가로 여겨져 온 스탈린을 진정한 공산주의 철학자로 구원해낸다. 그 누구도 쉽게 동의하기 힘들 주장을 펼치며 우리의 상식과 합의를 깨뜨리는 그로이스의 이 저서는 오늘날 거의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이는 유토피아로서의 공산주의를 사고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마련해준다.

### 2. 『미성년』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지음, 김정아 옮김, 지식음향, 2018년 03월 06일 출간)



『미성년』은 도스토옙스키의 5대 장편 중 하나라 가장 매혹적인 작품”으로 꼽히는가 하면, 가장

실패한 작품이며 도스토옙스키의 “슬럼프작”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엄청난 분량과 복잡한 내용, 미성숙한 주인공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두서없는 장면들, 수많은 문학적 장치와 패러디와 트라베스티가 독자의 이해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도스토옙스키 전문가인 김정아 필자가 작품의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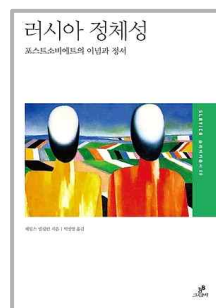
장 핵심 부분을 골라 발췌하고 상세한 해설과 주석으로 독자를 인도한다.



### 3.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1,2,3』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지음, 김희숙 옮김, 문학동네, 2018년 4월 30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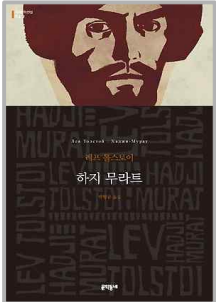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작품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애초 구상한 두 편의 소설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하는 미완성의 작품이다. 문학사적으로 러시아 문학을 세계문학 속에 우뚝 세운 19세기 러시아 장편 소설의 위대한 시대를 장엄하게 끝맺는 작품으로 손꼽히는 이 소설을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김희숙 교수가 심혈을 기울여 번역하고 정연한 해설을 더해 선보인다.

### 4. 『러시아 정체성』 (제임스 빌링턴 지음, 박선영 옮김, 그린비, 2018년 05월 15일 출간)



슬라비카 총서 8권. 소련 해체 후 러시아/러시아인이 겪은 정체성 혼란과 그 역사적 연원, 나아가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는 현대 러시아의 모습을 생생히 담아낸 책. 러시아 문화사 연구의 걸작으로 꼽히는 <이론과 도끼>의 저자로 2015년 퇴임하기까지 무려 28년간 미 의회도서관장을 역임한 러시아학의 거장 제임스 빌링턴의 2004년 저작이다.

혁명 이전 러시아의 지적 전통과 민중적 습성, 소비에트 해체 이후 벌어진 여러 사건과 학계의 담론과 대중매체의 반응 등을 폭넓은 시야로 분석함으로써 현대 러시아를 구성하는 ‘이념’과 ‘정서’의 뿌리-줄기-잎을 찬찬히 살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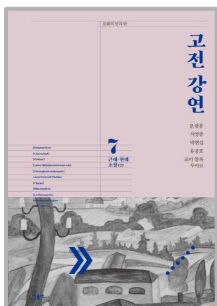


**5. 『하지 무라트』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지음, 박형규 옮김, 문학동네, 2018년 3월 30일 출간)**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162권. 러시아의 캅카스 전쟁 시기 북캅카스의 체첸 일대에서 용맹을 떨친

아바르인 전사 하지 무라트의 삶을 그린 장편소설이다. 톨스토이가 칠십대에 시작해 팔 년간 집필하고 사망 후 유작으로 출간된 이 소설은 톨스토이 연구가들에게 가장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는 “소우주의 <전쟁과 평화>”로, 문학비평가 해럴드 블룸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야기이자, 산문소설의 시금석 같은 작품”이라 상찬했다.

다양한 계급과 민족들 사이의 몰이해라는 비극적 아이러니가 짙은 작품이지만,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사는 인물들이 보여주는 강한 생의 의지는, 도덕적 양심에 따라 정직하고 순수하게 살아가고자 했던 톨스토이의 인생철학을 다시금 각인시킨다. 노년의 톨스토이가 사상적인 도정에서 잠시 벗어나 천명인 소설가로서 모든 열정을 아낌없이 바친 강렬한 역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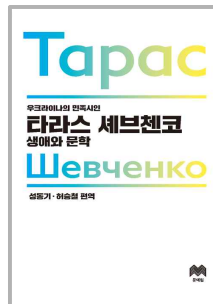


**6. 『고전 강연. 7: 근대 현대 소설 (2)(문학의 안과 밖)』 (문광훈, 석영중, 박현섭, 유종호, 로이 알록 꾸마르 지음, 민음사, 2018년 3월 23일 출간)**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가장 중요한 물음은 되풀이해서 물어야 하고, 또 되풀이해서 답을 구해야 한다. 고전은 이런 물음과 사유를 자극하는 발판과도 같다. 인간의 모순됨과 허약함을 밝혀내고 삶 속에 담긴 우여곡절을 드러내 보이며 그럼에도 인간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태도에 대해 알게 해 준다. 그래서 삶의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칠 때 우리는 고전으로 돌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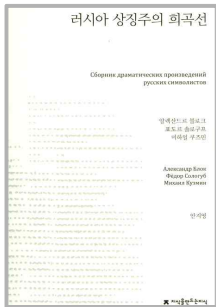
전 8권으로 구성된 『고전 강연』은 평생에 걸쳐 고전을 탐독하고 연구해 온 최고의 대가들과 함께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고전 읽기를 선보인다. 플라톤, 공자 등 고대 사상부터 셰익스피어, 괴테 등 대문호의 문학 작품들, 스티븐 호킹에 이르는 현대 과학까지 시대와 분야를 초월해 지금까지 널리 읽히고 사랑받는 고전 작품을 총망라했다. 『고전 강연』에 실린 50편의 글은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담긴 고전의 산을 오르는 데 가장 알차고 믿을 만한 가이드임을 자부한다.



**7. 『타라스 셰브첸코: 생애와 문학』 (성동기, 허승철 편역, 문예림, 2018년 6월 10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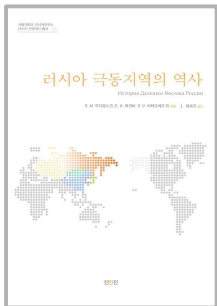
타라스 셰브첸코는 우크라이나의 민족시인이며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상징이다. 이 책은 타라스 셰브첸코의 생애와 문학을 담은 책으로, 파블로 자이체프의

<셰브첸코의 생애>를 저본으로 하고, 루즈키의 영어 번역본인 <Taras Shevchenko: A Life>(Toronto, Buffalo, Londo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88)를 참고하여 편역한 것이다.



**8. 『러시아 상징주의 회곡선』**  
(알렉산드르 블로크, 표도르 솔로구츠, 미하일 쿠즈민 지음, 안지영 옮김, 지식의만드는지식, 2018년 01월 03일 출간)

이 회곡선은 알렉산드르 블로크, 표도르 솔로구츠, 미하일 쿠즈민의 작품을 엮은 책이다. 책에 담긴 주옥같은 작품을 통해 독자를 회곡 세계로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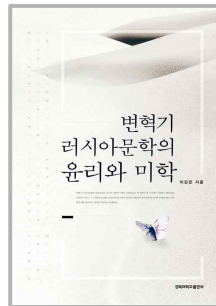
**9. 『러시아 극동지역의 역사』** (S. M. 두다료노크 지음, 양승조 옮김, 진인진, 2018년 3월 20일 출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 근현대사 총서 4권. 러시아 극동 지역은 지난 2000년 ‘극동연방관구’라는 지역으로 설정되었는데, 이 지역의 역사에 대해 러시아 국립교육기관이 2013년 새롭게 저술한 교과서이다.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국사학과와 고문서학과가 중심이 되어 극동연방대학교 인문학부 산하 여러 교육자들과 공동으로 작업한 성과로서, 모두 24명의 필진이 집필한 15장의 논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분량이 번역서 기준으로 700쪽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이다.

러시아 극동연방관구의 역사를 러시아 제국의 동방진출 이전 시기, 러시아 제국의 동방 지배시기인 17세기~20세기, 러시아 혁명기 및 소비에트 지배시기, 소비에트 해체이후 현재까지의 시기로 구분하여 정치, 경제, 종교, 민족의 영역을 기준으로 기술하여,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방대한 지역에서 진행되어 온 역사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대상 지역이 한-중 역사 논쟁의 중심인 동북 3성 지역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고대 중세사 역사에 대해서는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지만, 17세기 역사에 있어서는 러시아의 입장에 입각한 역사 기술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 <러시아 극동지역의 역사>가 보여주는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10. 『변혁기 러시아문학의 윤리와 미학』** (이강은 지음,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8년 4월 9일 출간)

1912년 마야콥스키는 미래주의 강령을 통해 이렇게 외쳤다. 그리고 50여 년이 지난 1968년 우리 땅

에서 시인 김수영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요청한다. ‘시여, 침을 뱉어라.’ 역설적이다. 인간과 세계를 아름답게 노래하여야 할 시인들이 왜 따귀를 울려붙이고 침을 뱉으라고 거칠게 위약을 부리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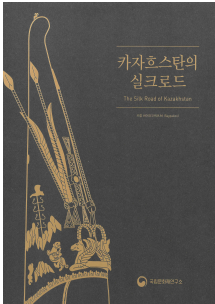
마야콥스키가 사회적 취향에 따귀를 울려붙이고 푸시킨과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를 현대라는 기선에서 내던져버리라고 웅변한 것은 특정한 삶의 시기에 창출된 미의 생생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미가 세계를 구원하리라’라는 말은 다음처럼 보완해도 좋을 것이다.

‘세계(혹은 우리)가 미를 구원한다면, 미가 세계를 구원하리라.’

오직 미만이 세계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를 경유하지 않는 세계의 구원은 불가능하거나 최소한 불안정하다.

문학 활동의 핵심적 요소를 윤리적 지향과 미학적 지향으로 설정하고 양자의 유기적이며 상보적인 연관관계를 탐색하는 것은 문학과 예술에 표현된 윤리성과 미학성의 상호작용을 하나의 소실점으로 귀결되는 일원적 체계로 보지 않고, 다원적이며 유동적인 복잡계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변혁기 러시아문학과 문학과정은 윤리적 지향과 미학적 지향이라는 양 방향의 힘 사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그 스펙트럼 속에는 오늘날 현대 문화의 창조와

수용에서 불가피하게 마주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에 대한 풍부하고 생생한 자료들이 존재한다.



**11. 『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 (카를 바이파코프 저, 최문정, 이지은 옮김,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년 12월 8일 출간)

본 책자는 2007년 카자흐스탄에서 출판된 카를 바이파코프(1940~)의 저서 『Великий Шелковый

путь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азахстана(카자흐스탄의 위대한 실크로드)』(러시아어)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저자에게 의뢰하여 원고와 도판 등을 수정·보완한 것을 한국어로 옮긴 번역서이다. 책은 총 9부로 구성하였으며 카자흐스탄 실크로드 상에 자리한 오아시스 도시들을 중심으로 그곳에 자리한 유적과 유물, 카자흐스탄의 자연과 민족, 교역, 공예, 종교, 건축 등 고대에서 중세까지 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실크로드 상의 고대 도시 성터에서 이루어진 수년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를 고고학 자료에 근거하여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와 함께 반영하였으며, 발굴된 유적·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풍부한 도판과 함께 수록하였다.

**12. 『2018 러시아는 어디로 가는가?』** (강덕수, 김선래, 최우익 지음, 한올아카데미, 2018년 05월 04일 출간)



2017년 러시아가 당면했던 대내외 상황을 점검하고 2018년 러시아가 나아갈 방향을 검토한 시사칼럼집.

1장에서는 정치, 경제, 대외 관계, 군사, 사회문화 등 러시아 각 분야의 한 해 상황을 평가 및 전망한다. 2장에서는 러시아와 각국의 관계를 살펴보고 국제사회에서의 러시아의 역할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러시아 경제 및 한·러 경제협력 상황을 분석하고 전망한다. 4~5장에서는 우주의 날 기념행사, 이반 3세 동상 제막, 한국에서 상연된 러시아 오페라, 러시아 음식의 특징 등 러시아 사회와 문화를 다룬다. 6장에서는 러시아 혁명 100주년인 2017년을 맞아 러시아 혁명을 회고하는 글들을 실는다.

**공지사항**

▶ 『러시아어문학논집』 제62집, 제63집 투고 안내

『러시아어문학논집』 제62집은 2018년 7월 15일에 투고가 마감되어 8월 25일에 발간이 되며, 제63집은 10월 15일에 투고가 마감되어 11월 25일에 발간이 됩니다. 『러시아어문학논집』은 발간 후 회비를 납부한 회원님들께 발송될 예정

입니다.

▶ 논문 투고 규정

가.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회원은 온라인 사이트 잼스(<https://russi>)

- an.jams.or.kr)를 통해 논문을 제출한다.
- 나. 투고 논문은 한국어, 러시아어, 또는 영어로 작성한다.
- 다. 모든 논문은 ‘아래아한글 2004’ 이상으로 작성하되, 지정된 편집용지 기준 20장 내외를 원칙으로 하며, 26장부터는 장당 1만원의 초과 게재료를 지불한다.
- 라. 모든 원고에는 편집용지 기준 1장 내외의 외국어(본문과 다른 언어) 초록과 8개 단어 내외의 한글 및 영문 주제어(Keyword)를 첨부한다.
- 마. 원고 작성의 세부사항은 ‘논문작성 요령’을 따른다.
- 바. 본 학회지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은 반드시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사. 공동집필 논문의 경우 제 1저자(연결 저자 포함)와 공동저자를 구분한다.
- 아. 특별 청탁 논문을 제외한 모든 논문의 필자는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자는 논문 투고 시 심사료(6만원)를 지불하며, 논문이 채택된 경우는 게재료를 납부한다(전임: 20만원, 전임 연구비수혜논문: 35만원, 비전임 5만원, 비전임 연구비수혜논문: 25만원). 심사료 및 게재료는 차후 조정될 수 있다.

- 자. 타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이거나 이미 게재가 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차. 본인 및 타인의 연구물을 표절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카. 본 학회지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의 저자는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하는 동시에 저작권에 대해 학회의 이용을 허락한다.

\* 계좌번호: 농협 302-3720-9266-81, 예금주: 이기주

▶ <평생 회비 한 번 더 내기!> 캠페인

존경하는 학회원 여러분!  
 우리 학회의 지속가능성을 공고히 하고 학회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회비 한 번 더 내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디 학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평생회비 한 번 더 내기!>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회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아래에 제시된 회비 납부 현황을 참조해주시시오.

회비납부

▶ 회비 납부 현황

2018년 6월 3일 현재 학회비 납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내주신 학회비는 엄격하고 꼼꼼하게 관리되어 학회 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혹시 회비 납부를 하였으나 아래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karusist@naver.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 특별회비 출연해 주신 분 (2009~2018)

이규환 전 회장 2,000,000원 (2017)

- 조주관 전 회장 2,000,000원 (2017)
- 정명자 전 회장 1,000,000원 (2017)
- 문석우 전 회장 1,000,000원 (2017)
- 최선 전 회장 3,000,000원 (2016)
- 이강은 전 회장 2,000,000원 (2015)
- 조주관 전 회장 2,000,000원 (2015)
- 경북대 토대사업팀(연구책임자 김정일) 500,000원 (2015)
- 전명선 전 회장 1,000,000원 (2014)
- 백용식 전 회장 1,000,000원 (2014)



- 변현대 전 부회장 1,000,000원 (2014)
- 김정일 부회장 1,000,000원 (2014)
- 조주관 전 회장 500,000원 (2013)
- 백용식 전 회장 1,000,000원 (2012)
- 석영중 전 회장 1,000,000원 (2011)
- 열린책들 2,900,000원 (2010)
- 최성호 전 회장 1,000,000원 (2009)

\* 특별회비를 후원해 주신 이규환, 조주관, 정명자, 문석우, 최선, 이강은, 김정일, 전명선, 백용식, 변현대, 김정일, 석영중, 최성호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회비는 학회발전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회비 한 번 더 내주신 분(2018년 6월 30일 현재)**  
 심성보(50만 원), 윤영순(50만 원), 이명현(30만 원), 이항재(50만 원), 서상범(50만 원), 최진희(30만 원), 김진규(50만원) (이상 7인)

\* 평생회비 한 번 더 내기 캠페인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평생회비 완납(1997년~2018년 6월 30일 현재)**  
 고영랑, 권경준, 김경태, 김규종, 김선명, 김선안, 김세일, 김용화, 김정아, 김정일, 김진규, 김진영, 김철균, 김홍중, 김혜란, 김희숙, 문석우, 박선영, 박재만, 박종소, 박현섭, 박현아, 박형규, 박혜경,

박혜옥, 백경희, 백승무, 백용식, 백준현, 변현대, 서상범, 석영중, 송인필, 심민자, 심성보, 심지은, 안병용, 안병팔, 안혁, 오원교, 오종우, 유승만, 윤영순, 이강은, 이규환, 이기웅, 이기주, 이남경, 이대우, 이득재, 이명현, 이영의, 이장욱, 이재혁, 이준형, 이지연, 이항재, 이현숙, 이형숙, 전명선, 전병국, 전정옥, 전지용, 정명자, 정보라, 조미경, 조유선, 조주관, 조혜경, 차지원, 천호강, 최건영, 최병근, 최선, 최성호, 최정현, 최중술, 최진석, 최진희, 한예경, 허승철, 허효영, 홍대화, 홍순미, 홍지인 (이상 84인)

**▲ 평생회비 부분납(2018년 6월 30일 현재)**  
 강수경, 김민아, 민경현, 서선정, 윤새라, 이수현(이상 10만 원), 김태욱, 정영주, 홍택규(이상 15만 원), 안지영(20만 원), 김상현(25만 원) (이상 11인)

**▲ 연회비 납부(2018년 6월 30일 현재)**  
 손재은 (이상 1인)

**▶ 2018년도 회비 납부 안내**

2018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 입회비는 2만원이며, 정회원의 연회비 및 평생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생회비는 3회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 전임교원 연회비: 5만원
- ▲ 일반회원 연회비: 3만원
- ▲ 전임교원 평생회비: 50만원
- ▲ 비전임교원 평생회비: 30만원

\* 입금하실 때에는 반드시 성함과 입금 내역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연회비, 홍길동평생회비)

**한 국 러 시 아 문 학 회**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РУСИСТОВ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02856 서울시 성북구 인촌로 108 고려대학교 청산MK문화관 503호 러시아CIS연구소 내 한국러시아문학회 사무국  
 TEL: (02) 3290-1641 학회 홈페이지: www.russian.or.kr